

## 송암교회 말씀묵상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는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네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메리 스티븐슨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

2022년 10월 17일(월)

미지근한 신앙  
찬송 542장  
요한계시록 3:14-22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15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들의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고, 별거벗은 상태라고 평가하  
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  
이라 자부하고,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했던 것입니  
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회  
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한  
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은 버림  
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  
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자신  
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상에 부요하기보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  
져야 합니다.  
- 질문 : 나는 무엇에 부요한 사람입니까?  
- 기도 : 주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18일(화)

재물 사용 설명서  
찬송 211장  
야고보서 5:1-6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  
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  
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3절)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둘 정  
도로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들을 향해 ‘울고 통  
곡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  
하였지만 일꾼들의 품삯까지 가로챘습니다. 일꾼  
들의 고통과 아우성을 외면한 채 사치와 쾌락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이 쌓  
아둔 녹슨 재물은 도리어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  
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  
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기에 재물의  
사용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질 때 빈손으로 왔고 결  
국 빈손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재물을 쌓는 일에만 몰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주신 재물을 사용한다면 더 행복할 것입  
니다.  
- 질문 :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나의 우선순위는?  
- 기도 :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2022년 10월 19일(수)

최고 가치?  
찬송 525장  
마가복음 19:16-22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21절)  
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물음을 가  
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씀하시고 “나  
를 따르라”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  
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  
서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간절했던 것일  
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질문하며 대화하였  
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들었  
음에도 그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  
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해 줍니다. 또  
한 내 삶의 우선순위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자 최고  
의 가치여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 질문 : 구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기도 : 종교적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0일(목)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336장

요한계시록 2:8-1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8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로 인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교회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집단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서머나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이 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결국 승리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 질문 :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 기도 : 주님,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1일(금)

발람의 교훈

찬송 344장

요한계시록 2:12-29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16절).

본문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교란시키는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해서 사탄의 계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술수를 가르쳐 주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탄은 끊임없이 악의 통로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질문 : 현재 다가오는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기도 :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능히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2일(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찬송 464장

마태복음 20:34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글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의 이야기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시 보게 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은 큰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저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의 강한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큰 소리로 부를 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그저 머무다 갈 무리입니까? 계속 주님을 따를 제자입니까? 누가 뭐라해도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만큼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소망하는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 질문 :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기도 :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찾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 10월 23일(주일)

불타는 사명

찬송 623장

디모데후서 1:1-14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9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후배인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뿐 만 아니라 바울 자신과 디모데 모두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험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디모데'를 도웁시다!

- 질문 : 내가 도와야 할 '디모데'는 누구인가요?
- 기도 : 주님, 제가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